

2023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다중격차와 이행의 시대

:여성노동의 현실, 쟁점, 전망

일 시 | 2023년 11월 11일(토) 09:00 - 19:00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주 최 |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후 원 | 한국연구재단

본 자료집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NRF-2023S1A8A4A01087901)



프로그램

2023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다중격차와 이행의 시대: 여성노동의 현실, 쟁점, 전망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09:00-19:00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주최 |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09:00-09:30 등록 · 개회사 및 축사

20-311

개회사 강이수(한국여성학회 회장)

09:30-11:30 [기조세션] 여성 노동 정책, 연구, 활동의 쟁점과 전망 [유튜브 생중계]

20-311

사회 권현지(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한국 노동시장의 복합적 젠더 불평등과 정책 의제들 ·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여성노동 내부의 격차와 차이 ·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 급진적 교차성 연대의 가능성 · 유이지운(Syracuse University 여성학과 방문교수)

토론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센터장),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엄혜진(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1:30-13:00 점심시간

이사회(20-205/206) / 총회(20-207/208)

13:00-14:50	[세션1] 인류세 시대 여성노동의 변화와 몸-물질-돌봄 [유튜브 생중계]	20-311
-------------	---	--------

- 사회** 김신효정(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발표** 기후위기 시대, 2030 여성들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중심으로
· 서연화(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여성환경연대)
- 발표** 탈석탄과 여성 노동 · 정은아(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연구위원)
- 발표** 여성화되는 경마: 경마산업복합체를 지탱하는 젠더역학 · 이마즈 유리(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
- 토론** 노고운(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전의령(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13:00-14:50	[세션2] 기후 위기 시대 트랜스내셔널 이주와 여성농업노동	20-201/202
-------------	---	------------

- 사회** 김지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발표**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이주와 생애과정 · 우춘희(University of Massachusetts 사회학과 박사과정)
- 발표** 농촌 결혼이주민의 숙련형성: 위치 변화와 제약 조건 · 박지은(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발표** 이주자-작물 네트워크와 창발적 공간성 · 정예슬(이화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
- 토론** 김영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이지연(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13:00-14:50	[세션3] MZ세대 여성들의 노동경력과 성인기 이행	20-203/204
-------------	-------------------------------------	------------

- 사회**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표** 지역 저임금 청년여성의 노동이력과 성인기 이행 · 김아령(싱가포르국립대학교 사회학 · 인류학과 박사수료)
- 발표** 지역대학 여학생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미스 매치와 진입장벽 · 신하영(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육학 교수)
- 발표** 청년 여성 플랫폼 노동자의 일 경험과 생애전망: 온라인 미세노동을 중심으로 · 류연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발표** 무한이직루트 속 청년여성프리캐리어아트 · 이소진 · 강보민(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석사과정)
- 토론**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이순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3:00-14:50	[세션4] 자유주제1	20-205/206
-------------	--------------------	------------

- 사회** 이건정(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발표** 학교 급식 노동자의 모순적 노동 경험과 대응 · 정다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 발표** 돌봄 기능의 학교 안으로의 제도화: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외부화, 내부화 기제의 충돌을 중심으로
· 장인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 발표** 코로나 시기, 사이판 한국 간호사들: 돌봄노동의 초국적 이동과 저/숙련 노동의 재구성
· 임세연(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 발표** 한국, 프랑스, 중국의 가사노동자 정책 논리와 가사노동의 저가 상품화 메커니즘 · 이미애(한신대학교 강사)
- 토론** 장진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손인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15:00-16:50	[세션5] 여성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실천 [유튜브 생중계]	20-311
-------------	---	--------

- 사회** 이현재(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 발표** 여성다수 사업장의 성별위계와 노동조건: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 투쟁 사례
·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발표** 남성중심 사업장 내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신당역 사건을 중심으로
· 이현경(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석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
- 발표** 성차별적 조직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싸우기 ·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토론** 김수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정은(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사무국장)

15:00-16:50	[세션6] 디지털 (창의) 노동과 청년 여성	20-201/202
-------------	---------------------------------	------------

- 사회** 이지연(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발표** 청년여성의 집무미기와 성별화된 플랫폼 경제 · 강유민(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
- 발표** 중국 청년 여성 BJ의 디지털 노동과 구조적인 딜레마 · 유빙(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 발표** 메타버스 여성 크리에이터들 노동과 젠더화된 아바타 정체성의 구성 · 박도윤(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수료)
- 발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 플랫폼을 통한 음식배달노동 양식의 재구성 · 정민주(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수료)
- 토론** 채석진(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민지(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15:00-16:50	[세션7] 여성 노동(사) 연구방법(론): 역사, 재현, 저항	20-203/204
-------------	---	------------

- 사회** 김보명(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 발표** 페미니즘 관점에서 한국경제사를 다시쓰기 위한 방법론 모색: 여성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 김미선(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발표** '그림자' 노동으로 다시 보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 재건 · 배상미(일본 와세다 대학교 국제교양학부 교수)
- 발표** 연대보다 경쟁?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와 갈등 · 박진영(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 발표** '여자 노동'을 기록하다 : 감춰진 여자들의 일 이야기 · 희정(기록노동자)
- 토론** 소현숙(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장), 김신현경(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15:00-16:50	[세션8] 자유주제2	20-205/206
-------------	--------------------	------------

- 사회** 민가영(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발표** 평화비는 어떻게 여성 청년에게 '우리'가 되었나 · 소정(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발표** 도시 공간 재현에서의 성매매집결지 위치와 재현 양상: 성매매집결지가 분포한 대전 원도심 지역을 사례로
· 권순지(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 발표** 여성주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 성교육의 시장화: 그룹 과외 형식의 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 김선아(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 발표** 디지털콘텐츠 분야 '메갈 색출' 사례를 통해 본 반페미니즘 남성 소비자 정치의 탄생
· 이민주(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 토론** 김주희(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 윤보라(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수료)

15:00-16:50 [세션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 성(불)평등의 역동성과 정책		20-207/208
사회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본부장)	
발표	'젠더갈등' 담론의 정치 ·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가족의 변화와 성별분업 · 박미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성불평등 경험과 인식의 성·세대·계층별 차이와 정책적 함의 ·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김수아(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최선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정미(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7:00-18:50 [세션10] 여성노동 차별의 구조, 위험, 그리고 역설 [유튜브 생중계]		20-311
사회	이은아(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의 역설 : 영국과 한국 · 정희정(University of Kent Sociology and Social Policy 교수)	
발표	여성일자리 구조의 변화와 한계: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 정형욱(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토론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17:00-18:50 [세션11] 돌봄노동과 과학기술		20-201/202
사회	임소연(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발표	분산된 돌봄: 실험실에서의 인간-기계 관계 · 김연화(서울대학교 과학학과 박사과정)	
발표	'온라인 학습관리교사'의 노동경험과 그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 · 장정현(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토론	이지은(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선혜(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17:00-18:50 [세션12] K-POP 팬덤과 감정의 상품화		20-203/204
사회	김효진(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발표	디지털 플랫폼과 팬픽의 창작경제: 포스타입 이후의 팬픽 · 고윤경(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수료)	
발표	오해받고 불화하며 숨지 않기: 여성 아티스트의 여성 팬덤에서 레즈비언 문화는 어떻게 가시화 되는가 · 연혜원(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발표	'여덕'을 퀴어링하기: 젠더와 섹슈얼리티, 페미니즘과 퀴어는 팬덤과 어떻게 조우하는가 · 조소연(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토론	허윤(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민지(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강사), 박소정(서울대학교 한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7:00-18:50 [세션13] 자유주제3		20-205/206
사회	김수아(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발표	'집을 떠나는 퀴어들': '생애주기의 부재'와 퀴어한 생존의 양식들 · 김순남(성공회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교수)	
발표	한부모여성의 장애자녀 돌봄경험과 모성규범 · 김민솔(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수료)	
발표	성별화된 이동성들: 교수 남편을 따라 지방도시로 이주한 고학력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 최희정(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발표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청년여성 자살률의 증가와 원인에 대한 탐색적 논의 · 이민아(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황지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김보명(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목 차

[기조세션] 여성 노동 정책, 연구, 활동의 쟁점과 전망

- 한국 노동시장의 복합적 젠더불평등과 정책의제들 2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여성노동 내부의 격차와 차이 3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급진적 교차성 연대의 가능성 4
유이지운(Syracuse University 여성학과 방문교수)

[세션1] 인류세 시대 여성노동의 변화와 몸-물질-돌봄

- 기후위기 시대, 2030 여성들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중심으로 ... 7
서연화(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여성환경연대)
- 탈석탄과 여성 노동 8
정은아(एको페미니즘연구센터 연구위원)
- 여성화되는 경마/남성화되는 은퇴마 운동: 경마산업복합체를 지탱하는 젠더 역학 9
이마즈 유리(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

[세션2] 기후 위기 시대 트랜스내셔널 이주와 여성농업노동

-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이주와 생애과정 11
우춘희(University of Massachusetts 사회학과 박사과정)
- 농촌 결혼이주민의 숙련 형성: 위치 변화와 제약 조건 12
박지은(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농촌이주여성-아열대 작물의 연합과 저항적 공간: 이주여성의 음식실천을 중심으로 ... 13
정예슬(이화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

[세션3] MZ세대 여성들의 노동경력과 성인기 이행

- 지역 저임금 청년여성의 노동이력과 성인기 이행 15
김아령(싱가포르국립대학교 사회학 · 인류학과 박사수료)
- 지방 소도시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진입장벽 17
신하영(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육학 교수)
- 청년 여성 플랫폼 노동자의 일 경험과 생애전망
: 온라인 미세노동을 중심으로 18
류연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무한 이직루프 속 청년여성프리캐리아트
: 청년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19
이소진 · 강보민(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석사과정)

[세션4] 자유주제1

- 학교 급식 노동자의 모순적 경험과 대응 21
정다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의 역학과 불평등의 지속
: 제도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돌봄전담사의 행위 전략을 중심으로 22
장인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 코로나 시기, 사이판 한국 간호사들
: 돌봄노동의 초국적 이동과 저/숙련 노동의 재구성 23
임세연(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 한국, 프랑스, 중국의 가사노동자 정책논리와 재생산의 국제적 분업 메커니즘 24
이미애(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세션5] 여성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실천

- 여성다수 사업장의 성별 위계와 노동조건: 파리바게뜨 사례 26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남성 중심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독자적 실천 가능성 연구
: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27
이현경(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석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
- 성차별적 조직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싸우기: 여성노동자 페미니즘의 탐색 28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세션6] 디지털 (창의) 노동과 청년 여성

- 청년여성의 집꾸미기와 성별화된 플랫폼 경제 31
강유민(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
- 중국 청년 여성 BJ의 디지털 노동과 구조적인 딜레마 32
유빙(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 메타버스 여성 크리에이터들 노동과 젠더화된 아바타 정체성의 구성 33
박도윤(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수료)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 플랫폼을 통한 음식배달노동 양식의 재구성
: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의 대중화와 탈성별화 34
정민주(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수료)

[세션7] 여성 노동(사) 연구방법(론): 역사, 재현, 저항

- 페미니즘 관점에서 한국경제사를 다시쓰기 위한 방법론 모색
: 여성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36
김미선(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학술연구교수)
-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매개한 재화의 창출’의 재현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1945-60년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37
배상미(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교수)
- 연대보다 경쟁? 노동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의 연대와 갈등: 여성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 38
박진영(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 ‘여자 노동’을 기록하다: 감춰진 여자들의 일 이야기 39
희정(기록노동자)

[세션8] 자유주제2

-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어떻게 청년여성에게 ‘나의 문제’가 되었나 41
소정(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 도시 공간 재현에서의 성매매집결지 위치와 재현 양상
: 성매매집결지가 분포한 대전 원도심 지역을 사례로 42
권순지(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 여성주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 성교육의 시장화
: 그룹 과외 형식의 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43
김선아(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 디지털콘텐츠 분야 ‘메갈 색출’ 사례를 통해 본
반페미니즘 남성 소비자 정치의 탄생 44
이민주(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세션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 성(불)평등의 역동성과 정책

-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미래
: “젠더갈등”(2015~2023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46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가족의 변화와 성별분업 48
박미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성불평등 경험과 인식의 성·세대·계층별 차이와 정책적 함의 49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션10] 여성노동 차별의 구조, 위험, 그리고 역설

- Flexibility Paradox and gender equality: 유연근무 모순과 성평등 51
정희정(University of Kent Sociology and Social Policy 교수)
- 여성일자리 구조의 변화와 한계: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52
정형욱(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세션11] 돌봄노동과 과학기술

- 분산된 돌봄: 실험실에서의 인간-기계 관계 54
김연화(서울대학교 과학학과 박사과정)
- ‘온라인 학습관리교사’의 노동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55
장정현(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세션12] K-POP 팬덤과 감정의 상품화

- 디지털 플랫폼과 팬픽의 창작경제: 포스타입 이후의 ‘팬픽’ 57
고윤경(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수료)
- 오해받고 불화하며 숨지 않기
: 여성 아티스트의 여성 팬덤에서 성 소수자 문화는 어떻게 가시화 되는가 59
연혜원(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여덕’을 퀴어링Queering
: 젠더와 섹슈얼리티, 페미니즘과 퀴어는 팬덤과 어떻게 조우하는가? 60
조소연(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세션13] 자유주제3

- ‘집을 떠나는 퀴어들’: ‘생애주기의 부재’와 퀴어한 생존의 양식들 62
김순남(성공회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교수)
- ‘싱글맘’의 장애를 가진 자녀 돌봄경험과 모성규범에 관한 연구 64
김민솔(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수료)
- 성별화된 이동성들
: 교수 남편을 따라 지방도시로 이주한 고학력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65
최희정(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청년여성 자살률의 증가와 원인에 대한 탐색적 논의 66
이민아(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조세션

여성 노동 정책, 연구, 활동의 쟁점과 전망

한국 노동시장의 복합적 젠더불평등과 정책의제들*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30.2%(2021)는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 구조가 응축된 지표이다. 본 연구는 우선 임금격차 이슈를 중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젠더불평등 양상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들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같은 기간의 여성노동 관련 정책의 기조와 내용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견주면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쟁점들이 사회정책 영역에서 정책의제로 만들어지고, 페미니스트 노동연구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론적 제안을 한다.

*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수행 중인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과 정책 방향” (2024년 1월 발간 예정) 연구 중 발표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의 일부임. 아직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인용을 금지함.

여성노동 내부의 격차와 차이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급진적 교차성 연대의 가능성

유이지운(Syracuse University 여성학과 방문교수)

이 글은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이후 1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공공운수 서울지부의 조직적 성장 과정에서 중·고령 여성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대안적 비전에 대한 요구가 주변화되는 문제를 한국의 불안정 노동운동 전반에 걸쳐 살펴본다. 비정규직 문제의 정치화(담론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주변화 또는 도구화되는 경향성은 비정규직 개념의 시간성, 즉 한국의 노동시장이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노동체제로 변화했다고 보는 지배적 역사 인식의 한계 때문인데, 이는 초기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성장 산업 내 정규직 남성 노동자라는 정상적 노동자상의 분열 내지는 해체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점에 기인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글은 한국의 체제 전환기에 노동력 재생산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집중하며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는데, 특히 한국의 발전국가 체제를 지탱했던 산업별 성별 노동 분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즉 여공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여성화한(feminized) 노동자상의 변화에 주목해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초과 착취가 가능한 유희 노동력(redundant/superfluous labor)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어 왔는가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최근 논의가 확대된 페미니스트 사회 재생산 이론에 기반해 교차적 노동분업 개념을 제안한다. **교차적 노동분업(intersectional divisions of labor)**은 성별, 인종, 학벌, 지역, 연령, 역량, 성적지향 등 사회적 위계들이 교차하며 강도 높은 초과 착취가 일어나는 노동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 형태와 운영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교차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분절된 정치 공간을 해체**하고 업종별, 사업장별 각자도생 방식의 투쟁이 아닌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의제들을 연결**해 노동하는 삶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사회운동 대중 조직과 비전을 상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본의 분할 전략에 매몰된 업종 및 사업장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이 아닌 **교차적 노동분업의 해체**를 지향하는 **(생산/재생산 조건에 기반한) 지역 의제 중심의 대안적 노동운동 조직과 연대체**를 기획할 수 있다. 결론을 대신해, 어떻게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

간 격차, 재생산 불평등 요소가 노동운동 전략과 결합해 교차성 연대를 통한 계급 기반이 확대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는데, 유연한 형태의 (초국적) 연대체 활동,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력을 활용한 지역산별 단체협상, 대안적 노동운동 조직 전략 유형을 검토한다.

세션1

인류세 시대 여성노동의 변화와
몸-물질-돌봄

기후위기 시대, 2030 여성들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의 :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중심으로

서연화(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여성환경연대)

본 연구에서는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통해 이들이 만들어가는 환경정의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세대 여성들은 대안 실천 중 하나인 “제로웨이스트 실천”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연구에서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2030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떻게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의미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들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을 늘려가고, 자신의 일상을 재구축하고 있었다. 반면, ‘배출자’ 중심의 쓰레기 처리 제도와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이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사적인 영역으로 고립시킴에 따라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가사노동화되고 개인의 고충을 강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2030여성들은 “쓰레기”를 매개로, 환경 문제를 나와의 무관한, 혹은 누군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규정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자신의 일상으로 끌어들인다. “나의 문제”로 위치시키는 태도는 위기를 자조하고, 환경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정의를 보여준다.

탈석탄과 여성 노동

정은아(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연구위원)

여성화되는 경마/남성화되는 은퇴마 운동 : 경마산업복합체를 지탱하는 젠더 역학

이마즈 유리(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

본 발표는 ‘경마의 여성화’와 ‘은퇴마 운동의 남성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경마산업 복합체를 지탱 및 심화시키는 젠더 역학을 밝히는 것을 시도한다. 우선 본 발표는 일본의 경마를 ‘동물산업 복합체’의 한 형태, ‘경마산업 복합체’로 이해한다. 다음으로 전후 일본에서 경마가 남성의 도박에서부터 여성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혹은 ‘오락’으로 대중문화가 된 과정을 ‘경마의 여성화’로 분석한다. 경마산업 복합체의 심화는 은퇴마 운동이 경마산업 복합체로 포섭되는 과정을 일컫는 ‘은퇴마 운동의 남성화’에 의해서 한층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경마산업 복합체에서 상품화된 말의 소비자로 자리매김되어 왔던 여성은 언제든지 동물화 및 가치절하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여성과 동물 억압의 교차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션2

기후 위기 시대 트랜스내셔널 이주와 여성농업노동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이주와 생애과정

우춘희(University of Massachusetts 사회학과 박사과정)

고용허가제를 통해 온 노동자들은 4년 10개월에서 최대 9년 8개월까지 일을 한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 만 18~39세의 노동자에게 입국할 기회를 주며 이 기간은 여성들의 생애주기에서 결혼/임신/출산/양육 혹은 임신중지의 기간과 맞물린다. 농업을 선택하는 캄보디아 여성들은 대부분 중학교 중퇴나 졸업을 하고, 프놈펜의 의류산업에서 최저임금으로 일을 한 뒤 더 나은 선택지를 위해서 한국으로 이주를 선택한다. 가족결합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대부분 약혼,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한다. 임신, 출산을 한 뒤 본국에 아이를 맡긴 뒤 초국적 모성을 실천한다. 혹은 임신을 늦추거나, 임신중지를 하기도 한다. 이주는 극적인 계급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본국에 돌아가서 '집'을 지어 가족부양 및 미래를 설계한다.

농촌 결혼이주민의 숙련 형성 : 위치 변화와 제약 조건

박지은(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이 논문은 초국적 가족이 구성되거나 해체되는 과정에서 성별, 인종, 계급이 교차하며 농촌 결혼이주민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노동의 관점에서 숙련 형성을 바탕으로 역할의 확장이 가능한데 이같은 노동 주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농촌 결혼이주민의 위치 변화에 어떠한 제약이 따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참여관찰, 개별면접, 집담회 자료를 활용하였다. 충북도 괴산군 마을조사과정에서 농촌 결혼이주민이 면 단위 농업노동력 공급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실마리를 얻어서 내국인이 외국인과 어떻게 조우하는지, 농가에 포괄된 결혼이주민의 혼종적 위치는 어떻게 다른 양상을 만들어가는지, 기존 농촌의 관습과 제도는 어떻게 어긋나거나 접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농촌 결혼이주민은 농업노동에서의 숙련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합 관계를 형성한다. 농촌 안에서 혈연관계, 노동 주도권 등은 남성 경영주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초국적 가족과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며 농업 전업, 겸업, 창업 등 각각의 갈래가 다른 삶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결혼이주민은 자기 이익과 가족의 이익이 뒤섞일 때 자녀를 근거로 결혼의 한계 상황 초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결혼 상태가 취약해지면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와 유사한 지위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민은 결혼 안팎을 넘어서 자기 보다 취약한 이들을 포괄하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있다. 이같은 동력은 작업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숙련을 바탕으로 자기 정보를 구축하고, 노동력을 공급하거나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관리자의 위치를 만들고 있다. 이같이 관리자의 입지를 구축하는 (결혼)이주민은 집안의 여성을 넘어서 집 안에서 바깥으로 연결시키며 농촌에서의 관계망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관계를 넓혀간다. 이같은 관계망은 일상적으로 부분만이 가시화되지만 유사시 파급력이 국제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농촌 결혼이주민의 이중 사회 소속은 내국인 여성과 다른 위치를 가능하게 만든다.

농촌이주여성-아열대 작물의 연합과 저항적 공간 : 이주여성의 음식실천을 중심으로

정예슬(이화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농촌 이주여성과 비인간 작물의 연합이 창발하고 있는 저항적 공간성과 그 의미를 다음의 질문에 따라 이주여성의 음식실천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비인간 아열대 작물과 이주여성의 연합으로서 그 사이의 독특한 정동적 지형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공간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비인간 작물과 이주여성의 연합이 만들어낸 공간은 어떻게 발달해왔으며 현재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 셋째, 이러한 공간성이 지닌 저항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음식과 이주자 및 여성의 정체성 및 행위성, 음식과 정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관련 문헌 분석과 함께 인류학적 접근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참여관찰 및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반구조적 인터뷰 및 이동적 방법론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세션3

MZ세대 여성들의 노동경력과 성인기 이행

지역 저임금 청년여성의 노동이력과 성인기 이행

김아령(싱가포르국립대학교 사회학 · 인류학과 박사수료)

본 연구는 지역 저임금 청년여성의 노동 이력 분석을 통해 장기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덫(trap)에 빠지는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러한 노동이력이 성인기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불안정 노동이력에 관한 기존 논의는 크게 '지속형(trap)'과 '상향이동형(stepping stone)'으로 나뉘지만 본 연구는 이 두가지 경로로 해석하기에 이들의 노동이력이 단선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산 지역에서 5년 이상 저임금 경제활동을 해온 청년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의 노동이력은 서비스업, 제조업,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직이 빈번하고, 여러가지 일을 병행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오가면서도 저임금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노동이력 전반에 걸친 잦은 이직에는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과로와 건강 이상,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일부는 더 나은 커리어를 갖기 위해 서울로 이주하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다양한 불안정 일자리(jobs)를 거쳐 커리어(career)를 시작한 후의 궤적이 이전 직업에 비해 상향이동으로 보일지라도 실상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둘째, 이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장의 생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두더라도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준비할 겨를 없이 바로 다음 일자리로 이동한다.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부분 20대 초반에 독립한 후 현재 1인가구로 살고 있다. 때문에 주거비를 비롯한 생계비 부담이 크고, 이는 일을 쉴 수 없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셋째, 직업훈련을 통해서 업종을 바꿀 때 직업상향이동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주거비지원 정책이 직업훈련과 자기계발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업종 전환을 통한 상향이동이 간호조무사 등 젠더화된 직업군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역 청년여성에게 상향이동의 기회가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졸업-취직-독립-결혼-부모되기'로 일컬어지는 성

인기 이행이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기존 논의가 있지만,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20대 초반에 이미 경제적, 주거적 독립을 이룬 후 1인가구 생활을 장기간 지속해 왔다.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막연한 일”이자 “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일부는 비혼 의사가 확실하다. 이들의 우선순위는 안정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며, 현재 의미 있는 가족은 고양이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청년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이들의 불안정한 삶이 오랫동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노동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청년여성의 상향직업이동이 직업훈련 지원 등의 일자리정책 뿐만 아니라 주거 등 복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때 가능했던 바, 노동빈곤 상태의 청년들에게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가족 구성 중심의 성인기 이행 지표는 청년여성들의 생애전망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노동 중심의 이행기 구성과 새로운 가족 구성(1인가구+반려동물)을 설명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 소도시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진입장벽

신하영(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육학 교수)

이 연구는 지역대학 여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노동시장 진입 준비 경험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지방 소도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쌓은 역량과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요구 사이에서 경험하는 미스매치에 대해서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광역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8명의 여학생에게 심층 인터뷰를 수행해서 경험적 연구자료를 수집했다. 주요 연구의 질문은 지역에 거주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청년여성들의 자기인식,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미스매치 현상, 젠더화된 현실과 수도권 집중 현상의 이중적 현실에서 경험하는 진입장벽이었다.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은 지역 내에서 의도적이거나 구조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었고,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진입장벽은 ‘지방대라는 현실’ 측면에서 남학생과 공유하는 한계점도 있었지만, 지역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남학생을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진입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명백하게 불리한 자기를 인식하고, 재학 중 미스매치와 진입장벽을 경험하지만 개인적 귀인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전략으로 택하고 있었다.

청년 여성 플랫폼 노동자의 일 경험과 생애전망 : 온라인 미세노동을 중심으로

류연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오늘날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노동 세계의 가능성과 오래된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는 일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일의 특성과 젠더화된 생애기획의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온라인 미세노동 플랫폼에서 일하는 청년 여성 노동자 35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청년 여성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미세노동을 여성에게 안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낮으며, 자율적이고 유연한 일로 경험했다. 그러나 이들의 생애기획 속에서 플랫폼 노동은 돌봄노동의 책임과 불안정 노동의 병행이라는 또 다른 종속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 경험은 역설적으로 청년 여성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쇠퇴와 함께 감수하는 가족 내 불평등과 노동시장 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무한 이직루프 속 청년여성프레카리아트 : 청년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이소진 · 강보민(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석사과정)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된 이래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이라는 구분만으로는 청년여성 노동자들의 노동불안정을 포착해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이직과정을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불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불안정을 담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가능성은 계약직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탈가능성을 억압하며 회사로의 헌신을 유도한다. 둘째, 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상이하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장시간 노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노동자들의 친밀성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집단적 목소리의 기반이 되지 못하지만 이직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및 적절한 시장임금 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은 불확실성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면서 성차별적 노동시장이라는 배경 위에서 청년여성들의 비혼가능성과 결합하여 생애불안정을 심화한다.

세션4

자유주제1

학교 급식 노동자의 모순적 경험과 대응

정다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본 연구는 여성 일자리로 구성된 학교 급식에 진입한 여성들의 노동 경험을 살펴보았다. 학교 급식이 기혼여성의 재취업에 적합한 일자리로 구성되는 과정과, 여성의 일에 대한 평가절하가 그대로 이어져 이들의 노동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었음을 밝혀내었다. 학교 급식은 기혼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홍보되었으나 실제로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소진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여성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구성한 노동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노동의 의미를 다양하게 구성한 점과 급식 노동이 육체노동, 돌봄노동, 정신노동과 같은 단일 범주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보다 통합적인 노동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의 역학과 불평등의 지속 : 제도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돌봄전담사의 행위 전략을 중심으로

장인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이 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돌봄 노동의 가치 절하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돌봄전담사들이 제도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취한 행위 전략에 초점을 둔다. 돌봄전담사들은 기존의 학교 조직 내의 불평등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및 교육감 직고용이라는 제도적 지위를 선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돌봄전담사들은 정부와의 교섭과정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을 탈전문화(deprofessionalization)하여 강사 직종이 아님을 확인받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 결과 돌봄전담사들은 강사로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제도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학교 조직에서의 돌봄 노동의 가치 절하와 교육-돌봄의 위계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코로나 시기, 사이판 한국 간호사들 : 돌봄노동의 초국적 이동과 저/숙련 노동의 재구성

임세연(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본 연구는 한인 간호사의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이주를 추동하는 구조적 요인과 이주의 경로 및 경험을 탐구한다. 간호이주 관련 논의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노스’로의 이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글로벌 노스/글로벌 사우스와 고숙련/저숙련 노동의 이분법적 위계를 재강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과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은 글로벌 노스/글로벌 사우스에 속하지 않는 곳으로서 한국 간호사의 사이판 이주를 분석한다면 기존 논의에서 설명하지 못한 이주 요인, 경로, 과정을 밝힐 수 있으며 저숙련 노동의 이주로 논의되어온 간호이주의 다층성을 보여줌으로써 돌봄-재생산-간호노동의 사회적 위치를 재구성할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프랑스, 중국의 가사노동자 정책논리와 재생산의 국제적 분업 메커니즘*

이미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본 연구는 2023년 하반기 시행 예고된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여성경력단절 방지, 즉 여성경제참가확대대책의 타당한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이주가사노동자로 일 해왔던 조선족의 주요 이주지 중 노동환경이 다른 세 이주사회(한국, 프랑스, 중국 대도시)의 가사노동자 증가시기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살펴봤다. 그리고 각 사회의 가사노동정책의 방향, 효과 검토를 통해 ‘돌봄의 시장화’ 메커니즘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정부의 시범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학술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국가와 시장의 협업은 돌봄노동의 시장화를 지속시켰고, 여성경제활동 향상보다는 여성노동의 가치저하, 비정규직화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의 불평등한 성별분업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의 성급한 도입에 앞서 필요성, 효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돌봄정책에 대한 전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발표자의 프랑스 르아브르노르망디대학 사회학 박사논문(Lee, 2018)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2023 한국사회학회 중기사회학대회에서 “국가별 가사노동정책의 논리와 이주가사노동자 계급 위치의 비교”에서 배경으로 간략하게 다룬 것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 miaelee2009@gmail.com

세션5

여성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실천

여성다수 사업장의 성별 위계와 노동조건 : 파riba게뜨 사례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 연구는 파riba게뜨 사회적 합의이행검증위 과정에서 파riba게뜨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파riba게뜨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노동은 파riba게뜨의 핵심역량의 원천이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견고한 유리천장과 수직적 성별분리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은 중층적 위계구조의 하단에서 고강도 장시간 노동, 휴게시간 부족,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규정 위반 등으로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 관리자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 의한 젠더기반 괴롭힘과 폭력을 포함한 괴롭힘과 폭력을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과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성 중심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독자적 실천 가능성 연구: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이현경(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 석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

이 글은 남성 다수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조직화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이다. 사례로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노동자 살해 사건을 분석하였다. 해당 사건에 주요한 행위자로 개입했던 여성노동자 현장모임과 노동조합의 실천을 대비하여 남성 중심 노동조합의 가부장성과 젠더의식 부재를 비판하였다. 여성노동자가 독자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성노동자 정체성의 확립, 노동조합 내부 여성노동자 기구의 구성, 여성노동자와 여성운동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연대를 제안하였다.

성차별적 조직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싸우기 : 여성노동자 페미니즘의 탐색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노동조합은 성평등한 조직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듯 노동조합도 성별 위계를 기본적인 구조로 하며 연령이나 인종과 같은 여러 가지 차이들의 불평등 조합이다. 본래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불평등 철폐를 목적으로 태어난 조직이므로 계급관계는 물론 다른 차이에 의한 불평등에 민감하고 그것들을 해소해 가야 하지만, 대다수의 노동조합은 계급 불평등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둔감하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성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노동조합 자체가 성별 불평등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 공간에서 여성노동자는 모순적 위치에 놓인다. ‘노동자’로서 당연한 구성원의 자격을 갖지만, ‘여성’이기에 일반적이지도, 동등하지도 않은 존재가 된다. 노동자의 표준모델은 남성이므로 여성노동자는 표준모델에서 벗어난 이탈자이거나 부족한 존재로 간주된다. 자본주의 일터에서 2차적 존재로 차별받아온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을 두드린 노동조합에서 그녀는 역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노동조합은 여성을 해방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여성은 또 다른 차별과 억압을 경험해 왔다.

계급 불평등 이외에 성별 불평등이야말로 여성노동자의 상황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구조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관행, 여성혐오 문화는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를 2차적 노동자로 밀어내는 제도이자 관행, 문화로 지속되어 왔다. 이 체계 안에서 자본은 이윤을 늘리고 남성노동자는 제한된 권력을 누린다. 노동조합이 여성에게도 해방적인 것이 되려면 성별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제도와 관행, 문화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해체를 위한 실천을 계속해 가야 한다.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에게도 해방적인 것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첫째, 성차별과 성별 불평등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내에 존재하는

여러 차이들 - 연령, 학력, 업무, 직책, 경력, 정치적 지향, 인종 등 - 중 하나로서 '젠더'가 아니라 젠더 체계가 갖는 독자성과 고유성, 지속성을 인식하고 그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노동자에게 젠더는 n개의 속성 중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구조다.

둘째, 그러므로 Cockburn은 노동조합 안에서 여성은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Cockburn, 1984). 노조 역시 남성중심적 조직으로서 여성노동자의 이해, 즉 저임금, 섹슈얼리티와 성적 괴롭힘, 돌봄과 가사노동 같은 이슈들을 주요 의제로 삼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안에서 여성들은 자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따로 또 같이'의 원칙으로 싸워 가야 한다.

셋째, 성평등 가치와 페미니즘을 조직의 주요 구성원리로 수용해야 한다. 서구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는 여성주의 운동과 협력보다는 불화(不和)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산업자본주의 시기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내내 미국에서 노동운동은 페미니스트들의 평등권 운동(ERA)에 반대했다. 성평등 운동이 어렵게 얻은 여성노동자 보호 입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에 대한 영역별 접근을 주장했다(Boris & Orleck, 2011). 노동계급 페미니스트들과 중산층 페미니스트들의 대립이라고 해석되는 현상은 20세기 후반 이후 악화되었다. 노동조합에서 여성조합원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의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성평등 의제를 적극적으로 통합해 가야 하는 이유는 더욱 명확하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조직에서 여성의 위치는 훨씬 더 주변적이고 불안정하다. 높은 성별 임금격차, 유리라기보다 쇠로 만들어진 것 같은 천장(승진 장벽), 고용불안정은 한국사회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여성조합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도 여성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싸워 가야 할 필요가 커진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질 때 노동운동의 활동가로서도 명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이현경의 논문(2023)은 여성이 지닌 생애 경험과 조건으로 인해 노동조합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던 여성노동자들이 페미니즘을 만나고 여성주의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써 노동운동의 리더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노동조합에서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페미니스트 의제를 실천해가는 것은 여성노동자는 물론 노동조합 운동 전반의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세션6

디지털 (창의) 노동과 청년 여성

청년여성의 집꾸미기와 성별화된 플랫폼 경제

강유민(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

본 발표는 '오늘의집' 플랫폼 사례를 통해 한국의 20-30대 청년여성들이 커머스 플랫폼과 맺는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집꾸미기 UGC 제작자, 콘텐츠 소비자, 그리고 커머스 종사자와의 심층 인터뷰 및 인테리어 플랫폼과 인스타그램에서의 디지털 참여 관찰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실제로 한국의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 및 수행되고 있는지 구체화하며 플랫폼 경제의 성별화된 작동 방식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구조와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발적으로 디지털 노동을 수행해나가고 있는 행위자들의 삶의 경험에서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중국 청년 여성 BJ의 디지털 노동과 구조적인 딜레마

유빙(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전 세계적인 디지털 산업의 확장으로 다양한 내용의 인터넷 개인방송이 등장하고 있다. 2015년부터 중국에서 점차 부상하고 있는 ‘쇼장방송(秀场直播)’은 젊은 ‘여성 BJ-남성 시청자’를 중심으로 하며, 소통과 노래 및 춤을 위주로 구성된 방송 유형을 말한다. 다른 형태의 디지털 경제와 유사하게, 쇼장방송은 흔히 새로운 형태의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장소와 기회로 묘사된다. 본 발표는 여성 BJ들의 젠더화된 정동노동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런 ‘기회’ 서사의 이면, 즉 기회의 불공평한 분배 및 내포된 착취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여성 BJ들은 희망을 품고 자발적으로 이 분야에 진입했지만, 지속되는 감정적·심리적·도덕적 곤경 및 갈등으로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 쇼장방송 산업의 변장은 ‘플랫폼-공회와 남성 시청자’가 수많은 여성 BJ에 대한 이중적인 착취 구조를 바탕으로 달성 한 것이었으며, ‘추방’된 여성을 발판으로 발전해 왔다.

메타버스 여성 크리에이터들 노동과 젠더화된 아바타 정체성의 구성

박도윤(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수료)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크리에이터 노동의 성격을 밝히며 특히 크리에이터가 아바타를 이용하는 방식의 젠더적 측면에 주목한다. 크리에이터의 아이템은 무성의 제페토 아바타의 젠더를 외형 변화를 통해 이분법적인 성별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 크리에이터에게 있어 아바타 꾸미기의 의미, 아바타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아바타를 이용한 노동이 정동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자는 프리랜서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노동윤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겪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제페토 크리에이터들의 노동적 성격과 아바타 정체성 구성에서 젠더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 플랫폼을 통한 음식배달노동 양식의 재구성 :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의 대중화와 탈성별화

정민주(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수료)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플랫폼을 통해 음식배달 노동을 한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오토바이를 탄 청년 남성’으로 대표되어온 음식배달 노동 양식이 플랫폼 노동의 형태로 대중화되는 과정을 속에 디지털 기술과 노동, 그리고 젠더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대면서비스산업의 축소는 여성들이 음식배달 노동을 시작하게 했으며, 여성들은 성별화된 일자리와 일터 내 젠더권력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음식배달 노동을 시작했다. 비대면 배달은 여성들로 하여금 부업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배달노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을 성별화되지 않는 노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도로 위의 성차별을 막기 위한 여성들의 전략과 배달원의 개인번호가 노출되는 과정은 이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었다.

세션7

여성 노동(사) 연구방법(론)
: 역사, 재현, 저항

페미니즘 관점에서 한국경제사를 다시쓰기 위한 방법론 모색 : 여성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김미선(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그 동안 한국(현대)경제사연구는 시장영역을 중심으로 국가(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남성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에 한국경제사에 대한 젠더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경제학과 역사학에서 전개된 한국경제사 논의 경향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론적 자원으로서 여성주의 경제학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적 맥락에서 한국젠더경제사 논의를 위해 어떠한 문제를 탐구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 위주에 집중함으로써 간과된 여성 자영업자의 소규모 사업체 운영(이외에도 여성의 가내노동과 금융활동)에 관한 역사적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여성 자영업자의 경험이 국가통계나 문서, 대중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주의 구술생애사연구가 갖는 의의와 함께 방법론적 이슈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 관점에서 한국(현대)경제사를 다시쓰기 위한 방법론적 모색을 시도함으로써, 경제학과 역사학에서 전개된 한국(현대)경제사 논의에 페미니즘적 개입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매개한 재화의 창출’의 재현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1945-60년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배상미(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교수)

이 발표는 섹슈얼리티를 매개한 재화의 창출이 재현되는 방식을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의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민족적 가부장제'가 미군들에 의해 위협받던 시기에, 어떤 섹슈얼리티의 규범이 특정한 관계를 '성노동'인지 아닌지로 나누는지 레오폴디나 포르투나티의 이론을 바탕으로 논하였다. 네 편의 소설 텍스트를 통해 특정한 친밀한 관계에 '성노동자 혐오'를 이용하여 민족적 가부장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포르투나티의 이론을 활용한 방법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연대보다 경쟁?

노동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의 연대와 갈등

: 여성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박진영(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노동운동에서 여성을 포함한 비주류 집단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오랜 이슈였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노동운동과 여성노조의 경험을 기반으로 연대와 경쟁이라는 틀로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연대를 통해 기존의 노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보다는 독자적인 여성 조직인 전국여성노조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와 경쟁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여성노조의 설립을 통해 여성노동운동은 조력자 위치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위자로 변화하였고, 이는 기존의 노조를 자극하여 경쟁적으로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위해서는 보다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자 노동’을 기록하다 : 감춰진 여자들의 일 이야기

희정(기록노동자)

일터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다른 몸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일터에 들어온 후에도 아픈 몸은 퇴출당하고, 노화된 몸은 저임금 외곽 노동으로 밀려나고, 재생산과 돌봄을 수행하는 몸은 단절을 겪는다. 예외로 지칭되는 몸과 정체성은 광범위하며, 그 예외성을 제거하기 위해 개별의 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 분투가 가열될수록 예외로 규정된 이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젠더화된 노동을 다루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 이들을 찾아 나가는 여정과 비슷하다. ‘보이지 않는 이들’을 만들어내는 일터의 작동을 짚으며, 지금의 노동에 의문을 품는다.

세션8

자유주제2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어떻게 청년여성에게 ‘나의 문제’가 되었나

소정(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본 연구는 일본군‘위안부’운동의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청년여성의 활동을 역사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화비를 둘러싸고 전개된 활동에서 청년여성들의 역할과 경험을 드러냈다. 청년여성은 ‘작은 소녀상’세우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지역·학교 내 평화비 건립 운동에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또한 2015 합의 이후 평화비 철거에 대해 ‘평화비 지키기 밤샘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화비가 청년 여성에게 어떤 의미이고, 일본군‘위안부’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2015 한일합의를 비롯한 백래시에 대해 구축했던 공동행동들을 역사화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이 오랜 시간을 건너 평화비를 보며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결과적으로 평화비가 존재하는 곳은 청년여성 개인에게는 ‘마음이 모이는 곳’이었고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집단으로서 ‘우리’를 느낄 수 있는 경로가 되기도 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재현하는 ‘우리’가 청년여성에게도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공통점에 기반했다. 이러한 과정은 시계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섞인 채 이어졌다. 이를 통해 형성된 집합적 정체성을 운동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주제어: 일본군‘위안부’운동, 평화비, 집합적 정체성, 여성운동

도시 공간 재현에서의 성매매집결지 위치와 재현 양상 : 성매매집결지가 분포한 대전 원도심 지역을 사례로

권순지(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도시의 특정 공간을 규정하는 의미 생산에 관여한 재현 체계 및 그에 따른 양상을 살펴, 공간 재현이 은폐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주목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집결지가 밀집해 있는 대전 원도심 지역을 배경으로 공간 재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 정책이 원도심 지역 재생에 집중함에 따라 펼쳐진 문화적 재생사업에 성매매집결지 정체성이 어떻게 배치되고, 또한 집결지와 관계한 존재는 어떤 위치에 놓였는가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지배적인 원도심 공간 재현의 의미망에 포섭되지 못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가시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공간 재현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관계 및 헤게모니의 작동을 살펴 공간 재현의 정치를 탐구해보고자 했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 성교육의 시장화 : 그룹 과외 형식의 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김선아(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이 연구는 학교 밖에서 그룹과외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섹슈얼리티가 사적인 교육의 장에서 유포되는 방식과 내용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과외식 성교육은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성교육 강사들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성교육이 시장화된 양상과 그 속에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가 나타나는 방식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현재 과외식 성교육은 젠더화된 방식으로 자리잡았으며, 한국사회의 입시 경쟁과 결합하여, 사교육화된 시장의 모습이 드러난다. 시장화된 청소년 성교육 현장에서 양육자는 소비자로서 선택권을 갖게 되었으며, 강사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경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성교육은 성평등 교육은 생략된 채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며, 능력주의 속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더불어, 젠더화된 성교육 현장은 ‘남성주체’ 중심의 성 담론으로 여성과 쿼어 청소년의 성을 타자화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쟁력 있는 주체’속에 남성 주체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여성을 타자화하는 새로운 젠더규범을 생산한다.

디지털콘텐츠 분야 ‘메갈 색출’ 사례를 통해 본 반페미니즘 남성 소비자 정치의 탄생

이민주(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이 연구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개인이나 실체를 ‘메갈’로 낙인찍고, ‘메갈’을 퇴출하기를 기업에 요구하는 소비자 행동주의 양식으로서 ‘메갈 색출’ 현상의 전개 과정과 젠더 정치에의 영향을 밝힌다. ‘메갈 색출’의 배경은 남성 중심 문화 영역에서 ‘메갈’로 표상되는 페미니즘 운동이 드러나며 부상한 ‘메갈’에 대한 부정적 정동과 담론이다. ‘메갈 색출’은 ‘메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담론으로 정당화되고, 시장에서의 남성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키웠다. ‘메갈 색출’이 남성연대와 권력을 확인하고 즐거움을 얻는 기회로 작용하면서 남성 놀이 문화로 재생산되었다. ‘메갈’ 낙인화 정치가 확장되면서, 가시화를 추구하는 대중화된 페미니즘 운동이 위축되었다. 또한 ‘메갈’을 둘러싼 젠더 정치 의제가 소비자 문제로 논의되면서, 시장 가치체제로 페미니즘을 평가절하하는 담론이 구성됐다. ‘메갈 색출’ 과정에서 형성된 반페미니즘 주체와 담론은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공명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로 작용했다.

세션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 성(불)평등의 역동성과 정책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미래 : “젠더갈등”(2015~2023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본 연구는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과 오독을 넘어 성평등을 위해 구축되어 온 제도적 변화를 퇴행시키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무효화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논의 프레임이 그 후퇴의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존 연구들에 기대어, 페미니즘 대중화의 기점으로 평가되는 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의 “젠더갈등” 기사들의 어휘를 통해 토픽을 추출하고 비중과 그 변화, 논의의 전제들을 분석했다.

첫째, 언론이 “젠더갈등”의 원인이나 해법 진단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단순 보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페미니즘 리부트기에 등장했던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이나 페미니즘 대중화의 배경으로서 성차별적 현실 진단에 대한 토픽의 비중은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든 반면, 20대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정치인들의 관련 공약과 발언은 폭증했으며 9년여의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정치권과 언론을 통한 “젠더갈등”의 동원과 극화의 문제를 넘어, 제도 정치의 장에서 성평등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스피커의 존재와 지위의 문제 해결, 페미니스트 정치의 대표성 강화가 시급한 성평등 정책의 과제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둘째, 대선 국면 이전까지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차별 논란을 그대로 복기하는 하거나 이 과정에서 표출된 혐오표현을 문제화하는 토픽이 지속되었으며, “젠더갈등” 담론이 소강기로 접어들었던 여성폭력방지법 제정과 대선 국면 이전 사이에는 그것

*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수행 중인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과 정책 방향”(2024년 1월 발간 예정) 연구 중 발표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의 일부임. 아직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인용을 금지함

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된 이슈는 RPS나 징병제로서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와 같은 사안들이 현행 성평등 정책을 통해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백래시로 인해 어려움이나 혼란을 겪는 이들(성소수자 및 남성 내부의 다양성 포함)의 경험으로부터 해당 상황에 대한 대항 서사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원인 진단 조차 불충분한 상황에서 “젠더갈등”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로 현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 그 밖의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노동의 불안정성 완화, 성평등 교육, 남녀동등복무제, 차례상 간소화 순이었다. 각 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넘어,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을 설명할 자료 구축을 위해 성주류화 사업의 지속 추진의 논거로 “젠더갈등” 담론을 재전유하는 것, 현행 성평등 교육을 교육에서의 성주류화 차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 군사주의가 가져온 해악을 성평등 정책의 과제로 포섭함으로써 페미니즘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 명절 노동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친밀성과 가족 구성의 양태를 고려한 대안 제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변화와 성별분업*

박미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가족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나,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출현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쇠퇴 등 변화 양상이 다양화되는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구 내 성별분업은 또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젠더 체제에 대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LPA)을 실시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녀의 유급노동시간 및 무급노동시간의 절대적인 양과 상대적인 비중, 부부의 상대적 소득 비중 등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와 같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들에 대해 탐색하였다.

*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수행 중인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과 정책 방향”(2024년 1월 발간 예정) 연구 중 발표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의 일부임. 아직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인용을 금지함.

성불평등 경험과 인식의 성·세대·계층별 차이와 정책적 함의*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몇 년사이 우리사회의 성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되었다. 주지하듯이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지수, 성격차 지수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시 지표들은 여전히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국민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체감도와 괴리가 있고 성별, 세대별 인식 격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거시 성평등 지표는 성불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준거로 기능을 해왔지만, 젠더 이슈가 주류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이래 주관적 체감도의 집단별 차이가 정치권력의 분배를 위한 이슈로 동원되면서 오늘날 성평등 정책은 정치권력 투쟁의 한 가운데에 위태롭게 놓여있다.

변화된 정책 환경은 여성과 남성 내부의 동질성에 대한 가정에서 벗어나 세대와 계층,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가로지르는 성불평등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성평등 정책 담론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성불평등 경험과 인식의 성*세대, 성*계층별 차이를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분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성평등 정책 담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수행 중인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과 정책방향”(2024년 1월 발간 예정) 연구 중 발표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의 일부임. 아직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인용을 금지함.

세션10

여성노동 차별의 구조, 위험, 그리고 역설

Flexibility Paradox and gender equality

: 유연근무 모순과 성평등

정희정(University of Kent Sociology and Social Policy 교수)

세계 각국에서 노동시장 양성평등을 도달하기 위해 유연근로 등 제반 가족 정책들을 실행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유럽 연합 역시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성별 임금격차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워라벨 뿐만 아니라 남녀간 노동시장 격차도 해결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들은 재택근무와 자율 출퇴근제 등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들이 많이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과연 유연근로제를 통해서 노동시장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왜 인지, 그리고 어떤 다른 제반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유연근로가 성차별을 해결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 발표는 최근 발간된 연구 저서 *The Flexibility Paradox: Why Flexible working leads to (self-) exploitation*의 내용을 담는다. 결론적으로 누가 일을 해야 하고 누가 육아를 담당 지며 가사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하지 않고서, 또한 과연 장시간 근로가 생산적인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유연근로는 남녀 성차별을 더 강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여성일자리 구조의 변화와 한계 :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정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여성일자리 구조의 변화와 한계를 파악하고자 했음. 즉,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비공식노동’을 ‘공식화’하고자 했던 시도가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의도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음. 이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1개소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는 변화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음. 더 나아가 가사근로자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되어야 하므로 현재 정부 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화하고자 했음. 마지막으로 가사근로자법 통해 ‘비공식 노동’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음.

세션11

돌봄노동과 과학기술

분산된 돌봄 : 실험실에서의 인간-기계 관계

김연화(서울대학교 과학학과 박사과정)

최근 돌봄노동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돌봄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며 돌봄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이며 여성적 노동으로 젠더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노동을 전문성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돌봄노동의 실천에서 제공자와 수혜자의 재정립을 시도하기 위해 과학기술학의 돌봄논의를 빌려와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의 실천을 분석하고자 했다. 대학 실험실의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 본 바, 대학원생이 과학자로 훈육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실험 장비를 다루는 능력이었다. 실험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 소통을 할 때에도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실험할 때의 장비 상태였다. 장비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와 동료, 나아가 자신을 위해 돌보아져야 하는 존재였으며 그 능력은 과학적 자질과 연결되었다. 즉, 실험실은 장비를 매개로 한 돌봄 공동체이며 이러한 돌봄 노동은 곧 과학자의 전문성으로 연결된다.

‘온라인 학습관리교사’의 노동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장정현(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확산된 직업인 온라인 학습관리교사의 노동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디지털 기술이 맞춤형 학습을 촉진하며 교사의 역량을 증강할 것으로 예상한 기존의 교육학 논의와 달리,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일하는 교사들의 실제 노동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오늘날 디지털화된 맞춤형 교육이 어떤 노동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한다. 연구 결과 산업화된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은 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교사의 노동은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을 띠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온라인 교육 산업이 출현시킨 새로운 서비스노동시장이 젠더화된 불안정성을 영속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온라인 교육의 기술정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문하고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션12

K-POP 팬덤과 감정의 상품화

디지털 플랫폼과 팬픽의 창작경제 : 포스타입 이후의 ‘팬픽’

고윤경(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수료)

한국에서 팬픽은 1990년대 중반 이후 PC 통신의 보급과 함께 대두한 온라인 공간을 배경으로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디지털 공간에서 팬덤, 특히 주로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는 팬덤의 하위문화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여성 팬들이 대중문화 스타의 이미지와 캐릭터에 몰입함을 넘어, 온라인상의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환상을 투사해 그를 수정, 가공, 재창조해내는 팬-생산 문화이자 서사로서 팬픽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까지 여성/팬덤의 프로슈머로서의 능동성과 문화산업의 스타 시스템 및 주류 공식문화에 대한 저항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상에서의 팬덤의 활동 및 문화의 ‘참여적’ 성격이 ‘파워’로서 가시화하고 스타 시스템 내 산업적 활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팬픽은 그러한 참여문화의 성격과 배치, 충돌하는 것으로서 팬덤 내부에서도 문제화되었으며, 이러한 팬덤의 참여문화적 성격에 주목해온 팬덤 연구의 시야에서도 바깥에 놓이게 되었다. 이 연구는 현재의 팬덤 참여문화와 스타 시스템의 구조 내로 깔끔하게 포획, 환원되지 않으며 팬덤 내부에서도 자기규율(‘자정’)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전과는 또다른 맥락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 팬-생산의 영역으로서 팬픽을 조명하되, 특히 이렇게 팬덤 커뮤니티의 중심부로부터 밀려난 팬픽의 생산이 팬픽카페와 같은 별도의 커뮤니티나 작가들의 개인홈페이지 등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에서 ‘창의노동’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현재 RPS(Real Person Slash)라 불리는 팬픽이 주요하게 창작, 공유, 축적되는 장소로서 포스타입이라는 창작 플랫폼에 집중할 것이며, 여기에서 RPS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채널과 이들의 플랫폼 활용 방식 및 양상, 효과 등을 살펴보면, 현재 팬픽의 창작‘경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구조가 ‘팬픽러’들에게 어떤 ‘쓸모’를 가지는지, 한편 이러한 수익구조가 활용되면서도 동시에 이들 자신에 의해 수익가능성이 경계, 부인되고 있다는 일종의 역설에 주목하면

서, 그 이유와 의미, 여기에서 발생하는 긴장 등을 살필 것이다. 지금의 디지털 지형 속에서 팬픽 생산이 기존 스타/시스템과 팬덤의 구도 속에서의 참여/저항의 구도를 넘어 디지털 창의노동의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새로운 문제들을 짚어 본다.

오해받고 불화하며 숨지 않기 : 여성 아티스트의 여성 팬덤에서 성 소수자 문화는 어떻게 가시화 되는가

연혜원(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2000년대까지 성 소수자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직접 제작하는 미디어와, 주류 미디어 생태계에서 성 소수자가 아닌 외부가 주도권을 쥐고 제작하는 미디어 속 성 소수자는 완전하게 분리된 채로 존재했으며, 미디어 밖 수용자로서 성 소수자 당사자는 ‘팬픽(팬 픽션)’과 ‘팬코스(팬 코스튬플레이)’등으로 희미하게 조명되는 것이 유일했다. 하지만 팬픽과 팬코스는 여성 청소년의 일탈로 조명 될 뿐 성 소수자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 조명된 바가 없었으며, 성 소수자 당사자들조차 팬덤을 ‘진정한 성 소수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자신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이 연구는 팬덤을 미디어와 관계 맺는 성 소수자들의 주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로 주목함으로써 성 소수자 당사자들이 팬덤을 통해 어떻게 미디어 종사자들 및 그 주변과 관계 맺고 영향을 주고 받는지 댄서 아이키와 여성 아이돌 마마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덕’을 퀴어링Queering : 젠더와 섹슈얼리티, 페미니즘과 퀴어는 팬덤과 어떻게 조우하는가?

조소연(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본 연구는 그동안 팬덤 연구의 장에서 해석되지 않았던 걸그룹의 여성 팬(덤), ‘여덕’의 경험을 젠더와 섹슈얼리티, 퀴어와 페미니즘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심층면접을 통해 여덕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퀴어와 페미니즘 정치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덕들은 한국 사회의 이성애 규범과 젠더 규범 모두와 불화하며 각기 다른 대응을 통해 독특한 경험과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 이성애 규범과 젠더 규범, 퀴어 규범과 페미니스트 규범 간 부딪힘으로 인해, 자신의 불온한 욕망을 검열하고, ‘진정한’ 페미니스트 또는 ‘진정한’ 퀴어라는 경계 내에 존재하길 압박 받는다. 그럼에도 여덕들은 경계 안팎을 유동하며 여성을 향한 여성의 욕망을 긍정하고 해석할 공간을 마련하면서 기존 규범에 저항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존의 ‘정상성’과 이분법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퀴어링’하며 퀴어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스스로를 (재)위치 짓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퀴어/페미니스트의 불/가능성에서 출발하여 퀴어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매끄럽게 잇기를 거부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션13

자유주제3

‘집을 떠나는 퀴어들’ : ‘생애주기의 부재’와 퀴어한 생존의 양식들

김순남(성공회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교수)

본 연구는 원가족과 불화의 가능성이 많은 퀴어들과의 질적인인터뷰를 통해서 퀴어들이 정의하는 ‘집을 떠난다는’것의 의미와 ‘퀴어한’ 생존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가시화 되는 사회적인 불평등, 불안정한 연결망, 새로운 소속과 친밀적 결속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배제와 차별에 주목함과 동시에 ‘주어진’ 생애주기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급진적인 연결과 비규범적인 생존전략을 가시화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제도적인 생애경로-결혼, 취직, 재생산, 세대상속-를 통해서 상상되는 삶의 방식이 어떤 지점에서 이성애규범적인 선형적인 시간성을 공고히 하는지, 또한 생산적인 주체를 당연한 규범적인 삶의 모델로 기획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퀴어들이 경험하는 ‘미래없음’을 통해서 감각하는 삶의 불안정성이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주의 사회와 교차되는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가족과의 불화의 가능성이 나,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이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조건에서, 사회적인 지원 체계의 부재가 삶의 빈곤이나 고립감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의 불안정성이 퀴어 내부에서 어떤 차이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성애가부장제 가족주의 사회와 연결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생존을 가족단위로 맡기는 가족주의 사회에서 퀴어가 원가족과 관계 맺고 있는 방식이나 퀴어로서의 사회적인 조건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페미니즘, 퀴어, 장애이론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상호의존, 연립, 오염된 삶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가난한 퀴어들'이 살아내는 생애적인 시간,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연루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강제적 친족/혈연중심이나 결혼중심의 삶에서 상상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것, 성공에 대한 것과 다른 방식의 친밀한 결속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러한 친밀한 결속들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과 연결될 수 있는 맥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에게 '우리는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이 왜 새로운 방식의 소속과 돌봄, 연결을 구축하는 저항의 의미이며, 비선형적인 생애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상성'을 감각하고, 상호공존의 가능성을 구축하는 물적토대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동성결혼이나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논의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 왜 우정적인 연대를 삶의 주요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우정이 어떤 맥락에서 친밀한 관계의 의미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출현할 수 있는 조건과 교차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오염된 관계의 세계 속에서 생성되는 연결된 삶으로서의 생애의 가능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주제어: '퀴어한' 생애경로, 연결적인 생애, 가난한 퀴어들, 오염된 관계의 세계, 강제적 친족

‘싱글맘¹⁾’의 장애를 가진 자녀 돌봄경험과 모성규범에 관한 연구

김민솔(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수료)

본 글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싱글맘들이 자녀를 돌보면 취약해지고, 돌보지 않으면 ‘자녀를 버린 나쁜 어머니’가 딜레마 속에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글은 ‘싱글맘’과 ‘장애를 가진 자녀’라는 특수성의 교차를 통해, 기존의 연구담론에서 포착하지 못한 싱글맘들의 상황과 환경 등의 조건에 따른 어머니 노릇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으며, 한국의 돌봄정책과 모성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불쌍한 어머니’, ‘빈곤한 어머니’로 타자화되어온 싱글맘들이 왜 자녀를 돌보는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장애인 돌봄 담론과 페미니즘에서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1) ‘미혼모’라는 용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며, 혼인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어머니만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비혼모’는 독신 여성이 계획적으로 임신-출산하는 경우를 부르게 되는데, ‘미혼모’와 ‘비혼모’라는 용어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본 글에서는 자녀를 혼자 키우는 여성이면서 이혼/사별/미혼 등의 범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싱글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이원형, 2008 참조).

성별화된 이동성들: 교수 남편을 따라 지방도시로 이주한 고학력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희정(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본고는 교수 남편의 직장이 위치한 지방도시로 이주한 고학력 여성들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서 '이동성'이란 공간적 이동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초래된 커리어(비)이동성을 포함한다. 심층면접 자료를 토대로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혹은 제도화된 유연성이 남편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이동성을 추동하며, 이 공간적 이동성은 빈번하게 여성의 커리어 이동성을 제약하게 됨을 드러낸다. 일과 가정 모두가 중요한 고학력 여성들은 커리어의 포기, 제약, 지연을 경험하면서 자기소외를 경험한다. 성별화된 공간적 이동은 가정내 성별분업에 기반하고 또 재생산하는 한편 도와줄 친족자원이 없는 무연고 지방도시와 남편의 교수라는 직업이 가정 내 젠더관계의 변화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도 탐색한다.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 청년여성 자살률의 증가와 원인에 대한 탐색적 논의

이민아(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연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20~30대 청년여성 자살률의 변화와 사회적 원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전체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에서 2021년까지의 청년여성 자살률의 추세와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요인 간의 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2017년 이후 증가한 청년여성 자살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실업률은 30~34세 여성을 제외하고는 청년여성 자살률과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비율의 경우,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청년여성 자살률과 일반적으로 동반상승하였다. 셋째, 교육받지도 고용상태도 아닌 청년니트(NEET)비율 증가와 청년여성 자살률 간에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였고 특히 25세 이상의 자살률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이후 더욱 심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여성의 주변화 및 배제가 자살의 주요 원인임을 함의한다.